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사회 담당

발 신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02-338-2890 f.counsel@sisters.or.kr)

제 목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보도요청

날 짜 2024. 3. 8.

## 보 도 요 청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에 깊은 신뢰와 경의를 보냅니다.
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확보와 성평등 사회의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본 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3년까지 33년 동안 총 90,700건의 상담을 해왔으며, 매년 한 해 상담통계를 분석함으로써 달라지는 성폭력 관련 상담의 경향을 짚어봅니다.
4. 본 상담소에서 2023년 진행한 전체상담은 1,349건(707명)이며 이 중 2023년 성폭력 신규상담 557명에 대한 기초 상담통계를 정리하였습니다.
5. 또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과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세부통계를 최근 3년간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6. 다음과 같이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을 보내드리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첨부]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32쪽)

상담통계 요약

I. 2023년 기초 상담통계 요약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년 동안 총 90,700회의 상담을 해왔다. 2023년 전체상담은 1,349건(707명)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291건(665명)이다. 또한 2023년 신규상담 기준 전체 상담명수(608명) 대비 성폭력상담명수(557명)의 비율은 95.7%이다. 상담소는 상담 지원의 내실화를 목표로 초기 상담의 질을 높이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담명수가 2019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다소 증가했다.

□ 2023년 성폭력 신규 상담명수 557명 중 497명(89.2%)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대로는 성인여성이 65.7%로 가장 높다.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이지만, 최근 3년을 비교하였을 때 남성피해자의 비율이 매년 약 1.5%p 상승하고 있다. 한편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84.4%이며, 성별 미상의 비율도 11.8%로 높게 집계되었다.

□ 상담 의뢰인은 피해자 본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60%대에 진입하고 올해 70.4%로 70%대였다. 이는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피해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간이 33.9%로 두 번째를 차지한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20세 이상)과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의 비율보다 강제추행 비율이 높았고, 청소년(19세-14세)의 경우에는 강간의 비율이 높았다.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4.3%로 예년과 유사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직장 관계에 의한 피해가 24.2%로 성인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각각 50.8%, 21.3%이 친족에 의한 피해로 상담하였으며, 2023년 친족 성폭력으로 상담한 61명 중 44명이 13세 이하의 유아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3년 한 해 동안 상담소가 지원한 성폭력상담건수는 1,291건인데, 이에 대한 지원내용은 중복하여 2,132회이다. 지원내용으로 보면 정보제공 및 상담원 의견개진이 34.8%, 심리·정서적 지원 32.3%, 법적지원이 22.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의료지원, 법적지원 외 공식적 대응지원, 기관 연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II-1.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요약

□ 사회적 관계맺음과 교류의 장으로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실에서,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는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여성청소년 자살 사건을 통해 밝혀졌듯이, 온라인의 강간문화는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과 성착취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피해양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세부통계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여성 피해자 95.0%, 남성 가해자 88.8%로, 2023년 기초 상담통계에 비해 여성 피해자,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도 기초 상담통계에 비해 5배 가량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온라인에서 만난 성폭력의 피해의 경우 성폭력 전체보다 성별화된 양상을 나타내며, 해당 피해 유형의 청소년의 피해가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 피해상담 중 75%가 본인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대리인 상담 94.1%로 성인에 비해 대리인 상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청소년 비율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 피해자의 상담 접근성은 높아져야 한다.

□ 가해자 만남 경로를 살펴보면 채팅어플에서 가해자를 만난 경우가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 외 인터넷(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SNS, 게임온라인 방송 등도 가해자 만남의 경로가 되었다.

□ 전체 피해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피해유형은 강간(55%)이며, 이어서 카메라이용촬영피해(20%)가 많았다. 또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다양한 유형이 중복해서 나타났다. 성폭력 외에도 폭행, 재물손괴 등의 피해가 동반되는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이 중복되는 피해자의 경우 주목할만한 피해 유형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강간과 카메라이용촬영이 중복되는 경우로서 강간 및 비동의 촬영 피해가 동시에 일어나고 피해 촬영물을 바탕으로 유포·협박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영상통화나 피해자의 촬영물을 바탕으로 유포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오프라인으로 불러내 강간 피해가 동반된 사례도 있다. 두 번째는 온라인방송 중에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남성BJ의 방송에 게스트로 출현하여 강제추행

과 시청자에 의한 성희롱(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를 동시에 겪고, 이후 촬영물이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다. 피해자가 B인 경우에는 물리적 피해는 없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비동의 유포 중심의 카메라이용촬영 피해가 동반된다. 세 번째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촬영물을 기반으로 유포·협박을 겪고, 온라인에서의 다수의 가해자들에게 노출되는 경우로서 카메라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가 중복된다.

□ 피해 장소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가 2.6배 이상 높았으며, 가장 많은 오프라인 피해 장소는 숙박시설이었다. 해당 장소는 출입이 곧 성적행위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강하게 작동되는 곳이지만,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숙박시설에 가기 전 스킨십이나 성관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경우가 다수였다.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에서의 피해 비율이 52.2%로 오프라인보다 높았다. 온라인에서의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이 메신저의 '채팅방'에서 다수의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겪거나, 메신저나 SNS 등을 활용한 영상 통화나 촬영물 전송이 피해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 오프라인에서 가해자를 만난 동기로는 고민상담이나 친교를 위한 만남이 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애/성적만남(12.5%)은 오프라인 만남 없음(16.3%)에 이어 세 번째에 불과하다. 채팅어플을 통한 만남 자체가 성적의도로 해석되는 통념이 존재하며, 법적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대화나 취미활동을 위해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 피해 시 특성의 경우 피해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가 21.3%이며, 가해자 다수 · 피해자 다수 · 그룹 · 성착취에 해당하는 경우도 모두 10%를 상회한다. 이러한 특성은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유포·협박으로 인한 것이 많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나 피해자의 취약성을 활용한 그룹 사례에서는 한 명의 가해자가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에게 피해를 가하기도 하며, 피해자는 위계적 관계와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를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 피해자가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가장 큰 동기는 법적지원(68.8%)이며, 정서지원을 원하는 경우도 48.8%이다. 피해자들의 법적지원에 대한 높은 요구는 법적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 고소를 고려한 피해자 중에서는 경찰에 의해 신고가 반려된 경우도 3건이 있었으며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성적행위를 전제한다는 통념이 검사의 무고 의심에 영향을 끼친 사례도 있다.

## II-2.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요약

□ 2023년 기초 상담통계에서 나타나듯 성폭력 피해는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성폭력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흔한 성폭력에 대한 통념 중 하나로인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인적이 드문 어두운 장소에 나타나 무력으로 가해하는 상황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세부통계를 통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성폭력 통념을 다른 각도에서 재검토하고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특성을 파악하였다.

□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2023년 기초 상담통계에 비해 준강간비율이 약 10%p 더 높았다. 또한 여성 피해자가 88.3%였으며, 성인 여성의 비율도 68.1%이다.

□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유형 및 발생장소의 경우, 강간과 준강간 피해의 경우 숙박시설에서 평균 55.2%가, 강제추행의 경우 공공장소(실외)에서 31%가 발생했다. 숙박시설의 경우 대부분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거나, 의식은 있지만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가해하는 사례가 대부분 이었다. 단일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공공장소(실내외)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마트, 은행 등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없는 틈을 타 가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해당 장소 특성상 강간 피해가 발생하기 어려운데, 아동·청소년이 모르는 성인에게 유인을 당해 한적한 공공장소로 이동하여 강간 피해를 입은 사례 등도 있다.

□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준강간 등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준강간·준강제추행 외 성폭력 유형에서 피해자가 피해 당시 놓였던 상황을 살펴보면 음주 중이거나 취한 상태가 34.4%로 가장 높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 피해인 경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발생한 피해가 42.9%로 많았고, 강제추행의 경우 인파 등에 의해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취한 상태일 때 많이 발생했다.

□ 2023년 기초 상담통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형사고소를 한 사례는 21.9%에 그치는데 반해,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53.2%로 높게 나타났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관계의 특성 등으로 신고를 고민하는 경우와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

□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적대응을 문의하는 경우가 6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였는데, 주로 분노(40.4%)와 불안(37.2%)과 함께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크게 세가지다. 첫 번째는 피해 발생 자체에 대한 분노·불안이고, 두 번째는 피해로 인해 야기된 일상생활의 불편함, 마지막으로 피해 당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대응하지 못한 경우 높은 분노와 좌절감을 호소했다.

#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b>I. 2023년 기초 상담통계</b>	<b>1</b>
1. 연도별 상담현황	1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89.2%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8.6%	2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84.4%가 남성, 이중 성인은 67.1%	3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 전체 상담 중 70.4%가 본인이 직접, 28.5%가 대리인이 상담의뢰	4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37.5% 강제추행, 강간은 33.9%	4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20세 이상)가 전체의 73.8%	6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4.3%	7
8. 피해자 지원내용	8
<b>II. 2023년 상담통계 세부분석</b>	<b>10</b>
<b>1.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b>	<b>10</b>
1-1. 여성 피해자 95.0%, 남성 가해자 88.8%로 성폭력 피해 전반보다 성별화된 양상	11
1-2. 상담 의뢰인의 75%가 피해자 본인, 청소년 피해는 대리인 상담이 94.1%	12
1-3. 가해자 만남 경로는 채팅어플을 통한 만남이 35.0%로 가장 많아	13
1-4. 피해유형은 강간피해가 55%로 가장 높고, 여러 유형의 피해가 중복되는 경우 많아	13
1-5.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피해가 83.6%, 개별 피해장소로는 숙박시설이 23.8%로 가장 높아	15
1-6. 만남 동기는 취미활동 등 친교가 37.5%로 가장 많으며, 오프라인 만남 없는 피해 16.3%	17
1-7. 2회 이상 피해가 21.3%, 유포협박과 그루밍으로 인해 피해 심화	18
1-8. 피해자의 68.8%가 법적지원을 원하지만, 경찰의 신고 반려 · 혐의없음 등의 어려움 마주	20
<b>2.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b>	<b>23</b>
2-1. 준강간피해 비율이 다소 높고, 피해자 89.4%가 여성, 가해자는 86.2%가 남성	23
2-2. 강간 및 중간간 피해의 경우 평균 55.2% 숙박시설에서 발생, 강제추행의 경우 공공장소(실외)에서 피해가 31%로 가장 많아	26
2-3. (준강간, 준강제추행 외) 술에 취한 상태 34.3%가 가장 많아	28
2-4.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53.2%로 높은 비율 차지	30
2-5.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주호소내용: 법적대응과 심리·정서적 호소 등	30

# I. 2023년 기초 상담통계

## 1. 연도별 상담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3년 동안 총 90,700회의 상담을 해왔다. 2023년 전체상담은 1,349건(707명)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291건(665명)이다. 이중 지속상담을 제외한 신규상담 기준의 전체상담명수(608명) 대비 성폭력상담명수(557명)의 비율은 95.7%이다. 상담소는 상담 지원의 내실화를 목표로 초기 상담의 질을 높이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담명수가 2019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다소 증가했다.

기존의 상담통계는 상담통계의 단위를 횡수/건수로 표기하였지만, 2022년 상담통계부터는 쉽게 통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인원을 '명수'로 중복되는 지속상담을 포함한 상담횡수를 '건수'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또한 상담 변화 추세에 따라 지속 상담을 포함한 건수 파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정 방식을 추가하였고, 상담명수 및 성폭력상담명수의 괄호 안에 신규상담과 지속상담인원을 포함한 한해 전체 인원을 추가로 기재했다.

표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명(%)>

연도	상담건수	상담명수(A)	성폭력상담명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92	2,834	2,028	<b>1,349</b>	66.5
1993	1,765	1,182	<b>841</b>	71.1
1994	2,553	1,723	<b>1,356</b>	78.7
1995	2,050	1,238	<b>1,021</b>	82.5
1996	3,459	2,138	<b>1,779</b>	83.2
1997	3,424	2,295	<b>1,647</b>	71.8
1998	4,285	2,948	<b>2,085</b>	70.7
1999	5,397	3,692	<b>2,564</b>	69.4
2000	4,164	2,873	<b>2,309</b>	80.4
2001	4,995	3,593	<b>2,869</b>	79.8
2002	4,877	3,533	<b>2,961</b>	83.8
2003	4,871	3,135	<b>2,839</b>	90.6
2004	3,870	2,505	<b>2,362</b>	94.3



2005	3,979	2,348	<b>2,151</b>	91.6
2006	4,246	2,468	<b>2,317</b>	93.8
2007	3,330	2,101	<b>1,948</b>	92.7
2008	2,237	1,548	<b>1,430</b>	92.4
2009	2,305	1,481	<b>1,338</b>	90.3
2010	2,227	1,474	<b>1,312</b>	89.0
2011	1,764	1,238	<b>1,151</b>	92.9
2012	2,390	1,437	<b>1,321</b>	91.9
2013	2,253	1,531	<b>1,418</b>	92.6
2014	2,185	1,602	<b>1,450</b>	90.5
2015	2,064	1,422	<b>1,308</b>	91.9
2016	2,224	1,501	<b>1,353</b>	90.1
2017	2,118	1,414	<b>1,260</b>	89.1
2018	1,940	1,359	<b>1,189</b>	87.5
2019	1,419	1,028	<b>912</b>	88.7
2020	1,324	779(844)	<b>715(780)</b>	91.8
2021	1,415	595(701)	<b>537(639)</b>	90.3
2022	1,387	537(622)	<b>478(562)</b>	89.0
2023	1,349	608(707)	<b>557(655)</b>	91.6
합계	90,700	59,354	<b>50,127</b>	84.4

##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89.2%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8.6%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 명수 557명 중 497명(89.2%)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다. 나머지 10.8% 중 남성 피해자는 8.6%이고, 피해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은 상담(미상)은 2%를 차지했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366명(65.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와 비교해 성인여성과 (2022년 64.0% → 2023년 65.7%), 여성 청소년(2022년 8.2% → 2023년 8.4%)의 비율이 약간 늘었고 여성 어린이(2022년 9.2% → 2023년 7.5%) 피해자의 비율이 다소 줄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2021년 5.2% → 2022년 6.9% → 2023년 8.6%)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연령대 성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합계
여	2 (0.4)	366 (65.7)	47 (8.4)	42 (7.5)	18 (3.2)	22 (3.9)	497 (89.2)
남	-	34 (6.1)	7 (1.3)	3 (0.5)	-	4 (0.7)	48 (8.6)
기타	-	1 (0.2)	-	-	-	-	1 (0.2)
미상	-	4 (0.7)	1 (0.2)	1 (0.2)	-	5 (0.9)	11 (2.0)
합계	2 (0.4)	405 (72.7)	55 (9.9)	46 (8.3)	18 (3.2)	31 (5.6)	557 (100.0)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84.4%가 남성, 이중 성인은 67.1%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557명 중 470명(84.4%)을 차지하였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374명(6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해자의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성별 미상의 비율은 11.8%(66명)로 예년 10.7%(51명)에 비해 다소 높게 집계되었다.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연령대 성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합계
여	-	17 (3.1)	-	1 (0.2)	-	1 (0.2)	19 (3.4)
남	14 (2.5)	374 (67.1)	33 (5.9)	15 (2.7)	-	34 (6.1)	470 (84.4)
기타	-	2 (0.4)	-	-	-	-	2 (0.4)
미상	-	18 (3.2)	-	1 (0.2)	-	47 (8.4)	66 (11.8)
합계	14 (2.5)	411 (73.8)	33 (5.9)	17 (3.1)	-	82 (14.7)	557 (100.0)

####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전체 상담 중 70.4%가 본인이 직접, 28.5%가 대리인이 상담의뢰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한 명수는 557명 중 392명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한 명수는 159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예년과 비교하여 피해자 본인(2022년 69.5% → 2023년 70.4%)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대리인(2022년 29.3% → 2023년 28.5%)이 소폭 감소했다. 대리인 상담은 가족/친인척이 상담한 명수가 91명(1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이 직접 상담한 비중은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70%대에 진입했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 현황

<단위: 명(%)>

본인	대리인 159(28.5%)									본인/대리인 (동석)	미상	합계
	가족 · 친인척	데이트 상대	이웃 · 친구	직장	학교 · 학원	변호 사	공공 및 유관기관	시민사 회단체	기타			
392 (70.4)	91 (16.3)	8 (1.4)	7 (1.3)	17 (3.1)	13 (2.3)	-	13 (2.3)	2 (0.4)	8 (1.4)	6 (1.1)	-	557 (100.0)

####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37.5% 강제추행, 강간은 33.9%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강간이 189명(33.9%)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피해의 경우, 2021년 35.9%, 2022년 36.8%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성희롱 56명(10.1%)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20세 이상)과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의 비율보다 강제추행 비율이 높았고, 청소년(19세-14세)의 경우에는 강간의 비율이 높았다.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연령대 피해유형		피해자 연령						합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	1 (0.2)	-	-	-	1 (0.2)	2 (0.4)	189 (33.9)
	강간 (유사강간포함)	1 (0.2)	84 (15.1)	18 (3.2)	16 (2.9)	11 (2.0)	5 (0.9)	135 (24.2)	
	준강간	-	29 (5.2)	2 (0.4)	-	-	1 (0.2)	32 (5.7)	
	강간미수	-	20 (3.6)	-	-	-	-	20 (3.6)	
강제 추행	강제추행	1 (0.2)	142 (25.5)	16 (2.9)	26 (4.7)	7 (1.3)	6 (1.1)	198 (35.5)	209 (37.5)
	준강제 추행	-	9 (1.6)	1 (0.2)	-	-	1 (0.2)	11 (2.0)	
성희롱		-	48 (8.6)	5 (0.9)	-	-	3 (0.5)	56 (10.1)	
통신매체이용음란		-	9 (1.6)	2 (0.4)	-	-	2 (0.4)	13 (2.3)	
카메라이용촬영		-	25 (4.5)	4 (0.7)	-	-	2 (0.4)	31 (5.6)	
스토킹		-	19 (3.4)	0 (0.0)	-	-	1 (0.2)	20 (3.6)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	1 (0.2)	0 (0.0)	-	-	0 (0.0)	1 (0.2)	
미상		-	18 (3.2)	7 (1.3)	4 (0.7)	-	9 (1.6)	38 (6.8)	
합계		2 (0.4)	405 (72.7)	55 (9.9)	46 (8.3)	18 (3.2)	31 (5.6)	557 <b>(100.0)</b>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20세 이상)가 전체의 73.8%

<표6. 가해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인(20세 이상) 가해자가 411명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청소년(19세-14세) 가해자 33명(5.9%), 어린이(13세-8세) 17명(3.1%), 고령(65세 이상) 가해자 14명(2.5%), 순이다.

표6. 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연령대 피해유형		가해자 연령						합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	1 (0.2)	-	-	-	1 (0.2)	2 (0.4)	189 (33.9)
	강간 (유사강간포함)	2 (0.4)	98 (17.6)	12 (2.2)	3 (0.5)	-	20 (3.6)	135 (24.2)	
	준강간	-	28 (5.0)	-	-	-	4 (0.7)	32 (5.7)	
	강간미수	1 (0.2)	18 (3.2)	-	-	-	1 (0.2)	20 (3.6)	
강제 추행	강제추행	5 (0.9)	154 (27.6)	16 (2.9)	13 (2.3)	-	10 (1.8)	198 (35.5)	176 (37.5)
	준강제 추행	-	10 (1.8)	-	-	-	1 (0.2)	11 (2.0)	
성희롱		5 (0.9)	40 (7.2)	3 (0.5)	-	-	8 (1.4)	56 (10.1)	
통신매체이용음란		1 (0.2)	7 (1.3)	1 (0.2)	1 (0.2)	-	3 (0.5)	13 (2.3)	
카메라이용촬영		-	21 (3.8)	-	-	-	9 (1.6)	30 (5.6)	
스토킹		-	17 (3.1)	-	-	-	3 (0.5)	20 (3.6)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	0 (0.0)	-	-	-	1 (0.2)	1 (0.2)	
미상		-	17 (3.1)	-	-	-	21 (3.8)	38 (6.8)	
합계		14 (2.5)	411 (73.8)	33 (5.9)	17 (3.1)	-	82 (14.7)	557 (100.0)	

###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4.3%

<표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470명(84.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35명(24.2%)으로 성인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작년에 이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51명(9.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청소년(19세-14세)은 학교에서 만난 관계에 의한 피해가 13명(2.3%)으로 가장 높았다.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의 경우 각각 31명(50.8%), 13명(21.3%)이 친족에 의한 피해로 상담하였으며, 2023년 친족성폭력으로 상담한 61명 중 44명 즉 72.1%가 13세 이하의 유아동 피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에 8.3%였던 친족 성폭력은 2021년에는 14.2%로 증가했다.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에 11.0%로 여전히 10%대를 유지하는 결과를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미상의 경우 51명(9.2%)으로 예년 58명(12.1%)에 비해 약 2.9%p 감소했다.

표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명(%)>

연령	유형		아는 사람 470(84.3)										모르는 사람	미상	합계
			친족, 친족외 인척 73(13.1)		직장	친밀한 관계	온라인	이웃 사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학원	주변인의 지인			
	친족	친족외 인척													
2020년	59 (8.3)	43 (6.0)	215 (30.1)	86 (12.0)	32 (4.5)	44 (6.2)	33 (4.6)	50 (7.0)	20 (2.8)	33 (4.6)	15 (2.1)	7 (1.0)	40 (5.6)	38 (5.3)	715 (100.0)
2021년	76 (14.2)	9 (1.7)	138 (25.7)	55 (10.2)	29 (5.4)	45 (8.4)	19 (3.5)	34 (6.3)	17 (3.2)	18 (3.4)	10 (1.9)	2 (0.4)	40 (7.4)	45 (8.4)	537 (100.0)
2022년	58 (12.1)	4 (0.8)	105 (22.0)	40 (8.4)	25 (5.2)	44 (9.2)	20 (4.2)	34 (7.1)	15 (3.1)	22 (4.6)	14 (2.9)	11 (2.3)	28 (5.9)	58 (12.1)	478 (100.0)
2023년	61 (11.0)	12 (2.2)	135 (24.2)	56 (10.1)	23 (4.1)	57 (10.2)	23 (4.1)	42 (7.5)	22 (3.9)	21 (3.8)	8 (1.4)	10 (1.8)	36 (6.5)	51 (9.2)	557 (100.0)

고령 (65세 이상)	-	-	-	1 (0.2)	-	-	1 (0.2)	-	-	-	-	-	-	-	2 (0.4)
성인 (20세 이상)	11 (2.0)	8 (1.4)	135 (24.2)	51 (9.2)	16 (2.9)	44 (7.9)	15 (2.7)	26 (4.7)	11 (2.0)	17 (3.1)	8 (1.4)	8 (1.4)	31 (5.6)	23 (4.1)	404 (72.5)
청소년 (19세-14세)	6 (1.1)	2 (0.4)	-	4 (0.7)	5 (0.9)	5 (0.9)	2 (0.4)	13 (2.3)	7 (1.3)	1 (0.2)	-	1 (0.2)	2 (0.4)	7 (1.3)	55 (9.9)
어린이 (13세-8세)	31 (5.6)	-	-	-	-	6 (1.1)	1 (0.2)	3 (0.5)	3 (0.5)	-	-	-	-	2 (0.4)	46 (8.3)
유아 (7세 이하)	13 (2.3)	-	-	-	-	1 (0.2)	1 (0.2)	-	1 (0.2)	-	-	-	2 (0.4)	-	18 (3.2)
미상	-	2 (0.4)	-	-	2 (0.4)	1 (0.2)	3 (0.5)	-	-	3 (0.5)	-	1 (0.2)	1 (0.2)	19 (3.4)	32 (5.7)

## 8. 피해자 지원내용

<표8. 피해자 지원내용>은 본 상담소가 2023년 한 해 동안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지속 지원 상담을 포함한 성폭력상담건수(1,291건)를 기준으로 중복집계한 지원 횟수는 총 2,132회다. 이 중 정보제공 및 상담원 의견개진이 743회(34.8%)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688회(32.3%)로 많았다. 심리·정서지원은 전화상담이나 면접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은 법적지원으로서 482회(22.6%)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지원, 법적지원 외 공식적 대응지원, 기관연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법적지원은 월요법률상담을 비롯한 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 사건지원과 연관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법적지원 외 공식적 대응지원은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내 신고 등의 지원을 나타낸다. 의료지원은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원이며, 기관연계는 좀 더 긴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타 기관을 본 상담소에서 직접 연계 의뢰한 경우이다. 기타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안내, 개인적 합의 관련 상담 등을 나타낸다.

표8. 피해자 지원내용(중복)

<단위: 회(%)>

법적 지원	법적 지원 외 공식적 대응지원	의료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원 의견개진	심리정서 지원	기관연계		공론화 지원	기타	합계
		의료 기관 연계동행	의료비 지원 관련 상담	의료 기관 연계			쉼터	유관기관			
482 (22.6)	27 (1.3)	0 (0.0)	124 (5.8)	24 (1.1)	743 (34.8)	688 (32.3)	4	8	5 (0.2)	27 (1.3)	2,132 (100.0)
		148 (6.9)					12 (0.6)				



## II. 2023년 상담통계 세부분석

2023년 세부통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인지하고, 해석하고 이후 대응하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친족성폭력 세부통계(2013, 2016, 2019, 2021), 직장내성폭력 세부통계(2013, 2017), 친밀한관계에서의 성폭력 세부통계(2016)를 진행하여 관계적 특성이 피해양상이나 피해자의 호소와 이후 대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왔다. 한편 2023년 세부통계에서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과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을 세부 분석하여, 기존에 다루지지 않았던 가해자-피해자의 관계에서의 특성과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 1.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2010년 중후반 이후 소라넷·웹하드 카르텔·텔레그램 성착취 등 비동의 촬영 및 유포·협박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성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과 디지털기술의 확장이 성폭력에 끼치는 영향은 단지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맺음과 교류의 장으로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23)에 따르면 강간피해상담 중 가해자가 채팅상대자인 경우는 12.8%로 친족이나 친밀한 관계 이외의 아는 관계에 의한 피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sup>1)</sup>. 또한 2023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여성청소년의 자살 사건을 통해 밝혀졌듯이, 온라인의 강간문화는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과 성착취로 이어진다<sup>2)</sup>. 그러나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2023년 세부통계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세부통계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세부통계는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의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상담자료를 수집했다. 관계가 '온라인'으로 체크된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이외 상담일지 중에서 가해자와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도 일부 포함하였다. 최초상담번호를 중심으로 1명당 1건의 일지를 정리하였고 지속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의 경우 법적과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의 일지를 중심으로 잡았으나, 피해자의 요구 등 일부 내용은 신규상담을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23),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강간피해상담 분석』,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집(2023), 『이슈 대응 집담회: 우울증이 덮이 되지 않으려면』, 한국성폭력상담소.

**1-1. 여성 피해자 95.0%, 남성 가해자 88.8%로 성폭력 피해 전반보다 성별화된 양상**

<표9.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성별·연령>을 보면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95.0%를 차지하고,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5.0%이다. 2023년 상담통계의 피해자 전체 성별 중 여성이 89.2%, 남성의 비율이 8.6%를 인 것보다 더욱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성별이 성인과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외의 연령대는 확인되지 않는다. 성인인 경우에도 세부연령이 파악된 사례를 볼 때, 20대의 피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이 28.8%로 2023년 상담통계의 청소년 비율인 9.9%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10.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가해자 성별·연령>에서도 가해자 또한 특정 성별이 높게 나타나고, 성인과 청소년에 연령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88.8%로 2023년 기초 상담통계의 가해자 중 남성 비율인 84.4%보다 높다. 또한 온라인의 특성상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어서 연령대가 미상인 경우가 15.5%,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8.8%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여성에, 가해자는 남성에 더욱 치우친 결과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전체보다 더욱 성별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남성중심 온라인 커뮤니티나 N번방 등의 디지털 공간 곳곳에 만연한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에서의 여성과의 만남을 성관계로 등치시키는 일부 남성들이 주도하는 온라인 강간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표9.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성별·연령**

<단위: 명(%)>

성별 \ 연령대	연령대			합계
	성인 (20세-64세)	청소년 (19세-14세)	미상	
여성	49 (61.3)	21 (26.3)	6 (7.5)	76 (95.0)
남성	2 (2.5)	2 (2.5)	-	4 (5.0)
합계	51 (63.8)	23 (28.8)	6 (7.5)	80 (100.0)

표10.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가해자 성별·연령

<단위: 명(%)>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64세)	청소년 (19세-14세)	미상	합계
여성	2 (2.5)	-	-	2 (2.5)
남성	61 (76.3)	2 (2.5)	8 (10.0)	71 (88.8)
미상	3 (3.8)	-	4 (5.0)	7 (8.8)
합계	66 (82.5)	2 (2.5)	12 (15.0)	80 (100.0)

1-2. 상담 의뢰인의 75%가 피해자 본인, 청소년 피해는 대리인 상담이 94.1%

<표11.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 연령별 상담 의뢰인 현황>을 보면 본인 상담이 75.0%로 많은 경우 본인 상담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 상담의 비율이 70%를 넘는 것은 스스로 경험을 말하고 대응하고자 피해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23년 전체 상담 비율의 본인 상담 비율인 70.4%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94.1%가 본인 상담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 상담이 6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청소년 성폭력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낮은 본인 상담의 비율은 이후 성폭력 피해지원에서 청소년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11.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 연령별 상담 의뢰인 현황

<단위: 명(%)>

연령대 의뢰인 유형	성인 (20세-64세)	청소년 (19세-14세)	미상	합계
본인	48 (94.1)	6 (26.1)	6 (100.0)	60 (75.0)
본인 대리인 동반	-	1 (4.3)	-	1 (1.3)
대리인	3 (5.9)	16 (69.6)	-	19 (23.8)
합계	51 (100.0)	23 (100.0)	6 (100.0)	80 (100.0)

### 1-3. 가해자 만남 경로는 채팅어플을 통한 만남이 35%로 가장 많아

<표12.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가해자 만남 경로>를 살펴보면 채팅어플로 인해 가해자를 만난 경우가 3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채팅어플은 데이팅 앱, 랜덤채팅, 동네친구어플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해당 경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플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인터넷(카페,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에게 피해를 겪은 경우도 16.3%에 달하는데,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오래전 피해에 대한 상담일 때 인터넷에서 가해자를 만났다고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의 인터넷에서의 만남은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메신저도 각각 12.5%와 7.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게임·온라인방송 등도 가해자 만남의 경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2.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가해자 만남 경로**

<단위: 명(%)>

만남 경로	명수	비율(%)
채팅어플(랜덤채팅, 데이팅앱)	28	35.0
인터넷(카페, 커뮤니티 등)	13	16.3
SNS(인스타그램 등)	10	12.5
어플(미상)	7	8.8
메신저(카카오톡 등)	6	7.5
게임	3	3.8
온라인방송(유튜브, 아프리카)	3	3.8
미상	10	12.5
합계	80	100.0

### 1-4. 피해유형은 강간피해가 55%로 가장 높고, 여러 유형의 피해가 중복되는 경우 많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상담일지 작성 시, 피해자의 주 호소내용에 기반하여 대표유형을 분류하며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다른 성/폭력 피해 또한 모두 체크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

력의 피해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유형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중복피해를 포함한 전체 피해 유형을 조사했다.

<표13.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 연령별 대표 피해유형>을 보면 전체 피해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피해유형은 강간(55.0%)이며, 카메라이용촬영 피해가 20.0%로 두 번째이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일지라도 디지털성폭력이 아닌 기존의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에는 강간이 6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청소년의 경우에는 카메라이용촬영 피해가 52.2%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청소년의 카메라이용촬영 피해가 많은 것은 영상통화의 비동의 녹화 및 유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촬영물 전송한 후 유포·성착취 등으로 이어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이후 <표14>와 <표15>에서 나타나듯,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와 오프라인 만남이 없고 온라인에서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로 확인된다.

**표13.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 연령별 대표 피해유형**

<단위: 명(%)>

연령대 \ 피해 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스토킹	카메라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미상	합계
성인 (20세-64세)	32 (62.7)	10 (19.6)	1 (2.0)	1 (2.0)	4 (7.8)	2 (3.9)	1 (2.0)	51 (100.0)
청소년 (19세-14세)	8 (34.8)	-	1 (4.3)	-	12 (52.2)	2 (8.7)	-	23 (100.0)
미상	4 (66.7)	-	1 (16.7)	-	-	1 (16.7)	-	6 (100.0)
합계	44 (55.0)	10 (12.5)	3 (3.8)	1 (1.3)	16 (20.0)	5 (6.3)	1 (1.3)	80 (100.0)

한편 <표14.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전체 피해유형(중복)>을 보면 중복 피해를 포함할 경우 피해유형을 대표유형 한 가지로 집계한 통계수치 대비 모든 피해 유형에서 피해건수가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다양한 유형으로 중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동일한 가해자 의해 성추행과 카메라이용촬영 피해를 입거나, 강간과 스톱킹 피해를 동시에 입는 식이다. 특히 강제추행이 6.8%p, 스톱킹이 5.4%p, 통신매체이용음란이 5.5%p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오프라인에서 가해자를 만나 강간이나 성추행 등의 신체적 피해와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온라인에서만 피해가 있을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외에도 협박에 의한 성매매, 폭행, 재물손괴 등 주요 피해유형 바깥의 성/폭력 피해가 동반되는 사례도 7명이 있었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 피해유형이 중복되는 피해자의 경우에 주목할 만한 피해 유형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강간과 카메라이용촬영이 중복되는 경우로서 강간 및 비동의 촬영 피해가 동시에 일어나고 피해촬영물을 바탕으로 유포·협박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영상통화나 피해자의 촬영물을 바탕으로 유포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오프라인으로 불러내 강간 피해가 동반된 사례도 있다. 두 번째는 온라인방송 중에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남성BJ의 방송에 게스트로 출현하여 강제추행과 시청자에 의한 성희롱(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를 동시에 겪고, 이후 촬영물이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다. 피해자가 BJ인 경우에는 물리적 피해는 없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비동의 유포 중심의 카메라이용촬영 피해가 동반된다. 세 번째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촬영물을 기반으로 유포·협박을 겪고, 온라인에서의 다수의 가해자들에게 노출되는 경우로서 카메라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가 중복된다.

표14.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전체 피해유형(중복)

<단위: 건(%)>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스토킹	카메라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미상	합계
대표 유형	44 (55.0)	10 (12.5)	3 (3.8)	1 (1.3)	16 (20.0)	5 (6.3)	1 (1.3)	80 (100.0)
중복 포함	45 (37.8)	23 (19.3)	7 (5.9)	8 (6.7)	21 (17.6)	14 (11.8)	1 (0.8)	119 (100.0)

### 1-5.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피해가 83.6%, 개별 피해장소로는 숙박시설이 23.8%로 가장 높아

<표15.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연령대별 피해 장소(중복)>을 살펴볼 경우, 온라인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보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2.5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피해장소는 숙박시설이었다. 숙박시설은 해당 장소에 대한 출입이 곧 성적행위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는 성폭력 통념이 작동하는 곳이다.<sup>3)</sup> 그러나 상담내용을 살펴볼 경우, 피해자들은 숙박시설에 가기 전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

3)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에 따르면 성적 행위 시 상대방에게 동의를 묻지 않은 이유 중에서 단둘이 모텔 또는 상대방의 집에 갔다는 비율은 남성의 38.0%, 여성 27.7%이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22), 『새로운 반성폭력·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했다고 말한 경우들이 다수 존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땅한 대화 장소를 찾지 못해, 편하게 술을 마시기 위해, 술에 취해 등의 이유로 숙박시설에 갔다가 강간·강제추행 등의 신체적 피해를 겪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사전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폭력을 행하였다. 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성 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숙박시설에 갔으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직후에 '동의를 받고 한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장소 또한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성인의 경우 83.6%가 오프라인에서 피해를 겪지만,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에서의 피해가 52.2%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청소년은 온라인 중에서도 메신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이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이 메신저의 '채팅방'에서 다수의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겪거나, 메신저를 활용한 영상통화나 촬영물 전송이 피해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별도로 체크하지 않았지만 피해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 본 표에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온라인 공간들이 곧 피해장소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 장)

표15.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연령대별 피해 장소(중복)

<단위: 건(%)>

대분류	세부내용	성인 (20세-64세)	청소년 (19세-14세)	미상	합계
온라인	메신저	3 (5.5)	7 (30.4)	(0.0)	10 (11.9)
	어플, SNS	1 (1.8)	2 (8.7)	1 (16.7)	4 (4.8)
	온라인방송	3 (5.5)	(0.0)	(0.0)	3 (3.6)
	미상	2 (3.6)	3 (13.0)	1 (16.7)	6 (7.1)
	소계	9 (16.4)	12 (52.2)	2 (33.3)	23 (27.4)
오프라인	숙박업소	17 (30.9)	2 (8.7)	1 (16.7)	20 (23.8)
	가해자 집/차	10 (18.2)	3 (13.0)	1 (16.7)	14 (16.7)
	놀이공간 (술집,룸카페 등)	4 (7.3)	1 (4.3)	1 (16.7)	6 (7.1)
	피해자 집	3 (5.5)	1 (4.3)	(0.0)	4 (4.8)
	기타(길거리 등)	3 (5.5)	(0.0)	1 (16.7)	4 (4.8)
	미상	9 (16.4)	4 (17.4)	(0.0)	13 (15.5)
	소계	46 (83.6)	11 (47.8)	4 (66.7)	61 (72.6)
합계	55 (100.0)	23 (100.0)	6 (100.0)	84 (100.0)	

1-6. 만남 동기는 취미활동 등 친교가 37.5%로 가장 많으며, 오프라인 만남 없는 피해는 16.3%

<표16.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오프라인 가해자 만남 동기>를 살펴보면 고민상담이나 취미활동 등 친교를 위한 만남이 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애/성적만남(12.5%)은 오프라인 만남 없음(16.3%)에 이어 세 번째에 불과하다. 데이팅앱과 같은 채팅 어플을 통한 만남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도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해당 비율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상담내용에서는 데이팅앱과 같은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하단의 1-7과 1-8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만남이 없는 경우 중에서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가 청소년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공간만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자와 연결되고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6.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오프라인 가해자 만남 동기**

<단위: 명(%)>

연령대 만남 동기	성인 (20세-64세)	청소년 (19세-14세)	미상	합계
친교(고민상담, 취미활동 등)	24 (47.1)	2 (8.7)	4 (66.7)	30 (37.5)
연애/성적만남	8 (15.7)	2 (8.7)	(0.0)	10 (12.5)
목적성 만남(공부, 방송/촬영)	7 (13.7)	(0.0)	1 (16.7)	8 (10.0)
기타(일방적 연락, 성판매)	1 (2.0)	1 (4.3)	1 (16.7)	3 (3.8)
오프라인 만남 없음	2 (3.9)	11 (47.8)	(0.0)	13 (16.3)
미상	9 (17.6)	7 (30.4)	(0.0)	16 (20.0)
합계	51 (100.0)	23 (100.0)	6 (100.0)	80 (100.0)

### 1-7. 2회 이상 피해가 21.3%, 유포협박과 그루밍으로 인해 피해 심화

<표17.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 특성(중복)>을 살펴보면 피해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가 21.3%로 나타났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10회 이상의 지속피해이다.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도 각각 12.5%, 11.3%였다. 지난 몇 년간 디지털성폭력과 연관된 키워드로 떠올랐던 성착취(12.5%)와 그루밍(11.3%)도 피해자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착취는 피해에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이 동반된 것을 뜻하며, 그루밍은 피해자가 그루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로 이어진 경우를 포함했다.

위의 특성들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해자 다수로 지속피해가 나타나거나, 그루밍 사례에서 동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가 다수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연결하는 키워드는 유포협박과 그루밍이다. 일부 가해자들은 조직적으로 유포협박을 하며 성착취를 하기도 하고, 1:1의 피·가해자 관계에서도 유포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강간을 오랫동안 감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그루밍의 사례 중에서는 한 명의 가해자가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피해자가 위계적 관계와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를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가 여러번 반복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지적장애가 있거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나 오프라인에서의 신체적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가해자가 온·오프라인에서의 자신의 지위(연예인, 온라인 모임장 등)를 활용하여 비동의 강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표17.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 특성(중복)

특성	건수	전체 피해인원 대비 해당 비율(%)
2회 이상 피해	17	21.3
가해자 다수	10	12.5
피해자 다수	9	11.3
그루밍	10	12.5
성착취	9	11.3

위와 같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에도 영향을 끼친다. <표18.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중복)>을 확인하면 피해자 중 43.8%가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유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9명에 달한다. 유포에 대한 불안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 가해자가 유포협박을 하거나, 유사 범행의 피해촬영물의 유포 정황을 인지한 경우에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카메라이용촬영죄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간 피해 이후 유포불안을 겪는 피해자도 있었다.

또한 죄책감을 느끼는 피해자도 10%에 해당하는데,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가 온라인을 통한 교류에 대해 경계하였거나,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것이 피해자에게 죄책감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표18.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중복)

분류	세부내용	건수	전체 피해인원 대비 해당 비율(%)
신체적 피해	임신	2	2.5
	성병	2	2.5
	하혈	1	1.3
심리적 피해	우울	22	27.5
	불안	35	43.8
	분노	18	22.5
	죄책감	8	10.0
	자살생각	3	3.8
	자살시도	3	3.8
	대인관계 회피	4	5.0
합계		98	122.7

1-8. 피해자의 68.8%가 법적지원을 원하지만, 경찰의 신고 반려·혐의없음 등의 어려움 마주

<표19.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요구(중복)>는 피해자들이 상담소를 통해 원하는 지원을 정리한 것이다. 법적지원은 경찰신고, 진행중인 법적절차에 대해 정보를 얻거나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지원을 원하는 경우이며 6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해경험을 토로하고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받는 등의 심리·정서 지원을 원하는 피해자도 48.8%에 달한다. 의료지원은 심리상담기관이나 신경정신과지원, 피해로 인한 임신중절 등을 요구하는 경우로 전체의 12.5%였다.

기타(8.8%)는 피해촬영물 삭제, 공론화에 대한 상담이나 요구,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삭제지원을 원하는 피해자 중에는 삭제지원이 가능한 정부 산하의 디지털성폭력 지원기관에서 반려된 케이스도 있었다. 온라인방송 촬영물의 유포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는 유포 비동의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삭제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19.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요구(중복)

항목	건수	전체 피해인원 대비 해당 비율(%)
법적지원	55	68.8
의료지원	10	12.5
정서지원	39	48.8
기타(삭제지원, 공론화 등)	7	8.8
합계	111	138.9

피해자들의 법적지원에 대한 높은 요구는 법적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 <표20.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법적과정 및 어려움>을 보면 경우, 형사절차를 언급한 59명 중 45.8%가 고소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중 3명은 경찰서를 방문 하였으나 신고가 반려되었다. 준강간 피해를 겪었으나 경찰에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며 신고를 반려하거나, 온라인방송 촬영물 유포에 대해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락했던 어플이나 아이디를 삭제하여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마주하거나 경찰에 의해 가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검찰조사에서 검사가 무고를 의심하거나, 검찰의 무고인지로 기소가 된 사례도 존재한다. 해당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데이팅 앱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다는 것이 무고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성적행위를 전제하고 있을 것이라는 통념이 법적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

표20. 최근 3년간(2021-202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법적과정 및 어려움

항목	건수	비율	해당 과정에서의 어려움
고소고려	27	4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신고 반려</li> <li>• 변호사의 신고 만류</li> </ul>
경찰조사	13	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 신원파악 불가</li> <li>•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유출</li> <li>• 불송치(혐의없음)</li> </ul>
검찰조사	8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기소(혐의없음)</li> <li>• 무고수사</li> </ul>
재판진행	7	11.9	-
재판종료	7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 무죄 판결(2건)</li> </ul>
합계	59	100.0	-

## 2.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2023년 기초 상담통계에서 나타나듯 성폭력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이 84.3%를 차지하는 만큼, 성폭력은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흔한 성폭력에 대한 통념 중 하나인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인적이 드문 어두운 장소에서 나타나 무력으로 가해를 하는 상황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념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의 피해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폭력(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으로서 성폭력을 바라보는 반성폭력 운동 속에서 구체적인 실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세부통계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여, 성폭력의 통념을 다른 각도에서 재검토하고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상담일지 작성 시, 가해자를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사례는 처음 만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로 친구의 지인이나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경우는 제외된다. 본 세부통계는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개년 동안 본 상담소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상담한 94명의 신규상담일지를 분석한 것임을 밝힌다.

### 2-1. 강제추행과 준강간피해 비율이 다소 높고, 피해자 89.4%가 여성, 가해자는 86.2%가 남성

<표21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성별·피해유형>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총 94명(100%)의 사례 중 주요 성폭력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 44.7%, 강간 16.0%, 준강간 16.0% 순이고, 2023년 기초 상담통계에서의 주요 성폭력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 35.5%, 강간 24.2%, 준강간 5.7% 순으로 보고되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기초 상담통계에 비해 강제추행 비율은 9.2%p, 준강간 비율은 10.3%p 높았다.

(다음 장)

표21.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성별·피해유형

<단위: 명(%)>

피해 유형 성별	강간 (유사 강간포 함)	준강간	특수 강간	강간 미수	강제추 행	준강 제추 행	성희 롱	카메 라이 용 촬영	성적 목적 을위 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미상	합계
여	15 (16.0)	15 (16.0)	3 (3.2)	1 (1.1)	32 (34.0)	1 (1.1)	4 (4.3)	6 (6.4)	1 (1.1)	2 (2.1)	3 (3.2)	83 (88.3)
남	-	-	-	-	8 (8.5)	-	-	-	-	-	-	8 (8.5)
기타	-	-	-	-	2 (2.1)	-	-	-	-	-	-	2 (2.1)
미상	-	-	-	-	-	-	-	-	-	1 (1.1)	-	1 (1.1)
합계	15 (16.0)	15 (16.0)	3 (3.2)	1 (1.1)	42 (44.7)	1 (1.1)	4 (4.3)	6 (6.4)	1 (1.1)	3 (3.2)	3 (3.2)	94 (100.0)

<표22. 최근 3년간(2020-2022)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성별·연령>에 따르면 피해자의 성별은 88.3%가 여성이고, 68.1%가 성인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23.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가해자 성별·연령>에 따르면 가해자의 성별은 86.2%가 남성이며, 63.8%가 성인남성이다.

(다음 장)

표22.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성별·연령

<단위: 명(%)>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64세)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합계
여	64 (68.1)	8 (8.5)	5 (5.3)	3 (3.2)	3 (3.2)	83 (88.3)
남	6 (6.4)	-	-	1 (1.1)	1 (1.1)	8 (8.5)
기타	2 (2.1)	-	-	-	-	2 (2.1)
미상	1 (1.1)	-	-	-	-	1 (1.1)
합계	73 (77.7)	8 (8.5)	5 (5.3)	4 (4.3)	4 (4.3)	94 (100.0)

표23.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가해자 성별·연령

<단위: 명(%)>

연령대 성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64세)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합계
여	-	1 (1.1)	-	-	-	-	1 (1.1)
남	3 (3.2)	57 (60.6)	4 (4.3)	-	-	17 (18.1)	81 (86.2)
기타	-	-	-	-	-	-	-
미상	-	2 (2.1)	-	-	-	10 (10.6)	12 (12.8)
합계	3 (3.2)	60 (63.8)	4 (4.3)	-	-	27 (28.7)	94 (100.0)



## 2-2. 강간과 준강간 피해의 경우 숙박시설에서 평균 55.2%, 강제추행의 경우 공공장소(실외)에서 피해가 31%로 가장 많아

<표24.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유형 · 피해장소>에 따르면 강간, 준강간 피해가 숙박시설에서 평균 55.2%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해당 장소의 경우,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거나 의식은 있지만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가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숙박시설로 이동한 후 가해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다른 경우로는 숙박시설에서 피해자가 음주 후 블랙아웃인 상태에 이르렀는데, 모르는 다른 투숙객이 침입하여 가해를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단일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31%가 공공장소(실외)에서 발생했는데, 해당 장소의 경우 사람이 많은 공터와 길거리나 공원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장소(실내)에서도 강제추행이 23.8% 높은 비율로 발생했는데, 마트, 은행 등 인파가 많은 장소로 피해자가 정신없는 틈을 타 가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일 때 가해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공공장소 특성상 강제추행에 비해 강간 피해가 발생하기 어려우나, 아동·청소년이 모르는 성인에게 유인을 당하여 한적한 공공장소로 이동하여 강간 피해를 입은 사례 등도 있었다.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 공간에서도 피해가 8.5% 발생했는데, SNS, 댓글, 채팅 등에서 기존에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닌 초면인 사람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이다. 온라인에서의 카메라이용촬영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과 처음 채팅을 하던 중 가해자의 요구대로 사진을 보냈는데, 이후 금전을 요구하며 유포협박을 하는 경우이다.

(다음 장)

표24.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유형 · 피해장소

<단위: 명(%)>

성별	피해 유형												
	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희롱	카메라이용촬영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미상	합계
숙박시설	8 (57.1)	8 (53.3)	2 (66.7)	-	-	4 (9.5)	-	-	1 (16.7)	-	-	-	23 (24.5)
공공장소 (실내)	1 (7.1)	-	-	-	-	10 (23.8)	-	2 (50.0)	2 (33.3)	1 (100.0)	-	-	16 (17.0)
공공장소 (실외)	2 (14.3)	1 (6.7)	1 (33.3)	1 (100.0)	-	13 (31.0)	-	-	-	-	-	1 (33.3)	19 (20.2)
대중교통	-	-	-	-	-	7 (16.7)	-	-	1 (1.1)	-	-	-	8 (8.5)
온라인	-	-	-	-	-	-	-	2 (50.0)	2 (33.3)	-	3 (100.0)	1 (33.3)	8 (8.5)
술집	-	1 (6.7)	-	-	-	6 (14.3)	-	-	-	-	-	-	7 (7.4)
가해자의 차	3 (21.4)	-	-	-	-	1 (2.4)	1 (100.0)	-	-	-	-	-	5 (5.3)
가해자의 집	-	4 (26.7)	-	-	-	-	-	-	-	-	-	-	4 (4.3)
피해자의 집	-	-	-	-	1 (100.0)	-	-	-	-	-	-	-	1 (1.1)
미파악	-	1 (1.1)	-	-	-	1 (2.4)	-	-	-	-	-	1 (33.3)	3 (3.2)
합계	14 (100.0)	15 (100.0)	3 (100.0)	1 (100.0)	1 (100.0)	42 (100.0)	1 (100.0)	4 (100.0)	6 (100.0)	1 (100.0)	3 (100.0)	3 (100.0)	94 (100.0)

### 2-3. (준강간, 준강제추행 외) 술에 취한 상태 34.3%가 가장 많아

앞서 <표24>를 통해 준강간 등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준강간·준강제추행 외 성폭력 유형에서는 피해자는 당시 어떤 상황에 놓여있었는지, 당시의 상황이 파악된 70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표25.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당시 피해자 상황>에 따르면 음주 중이거나 취한 상태 34.4%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의식이 있더라도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 의식이 약하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사례가 많았다. 이중 술에 취해 걷는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이 부축해 준다고 하며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등의 사례도 있었다.

피해 유형별로 본다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피해인 경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피해가 42.9%로 많았다. 또한 피해자가 음주 중이거나 취한 상태일 때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밖에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여성에게 친절하게 접근하여 도움을 준 뒤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유인하여 가해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절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제추행의 피해의 경우, 인파 등에 의해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가 43.9%로 가장 많았고, 음주 중이거나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이 발생한 사례도 36.6%였다.

앞서 <표22>에 따르면 술집에서의 피해가 7.4% 보고되었는데, 모르는 사람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이 취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등이다. 술자리 합석이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성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적 피해다.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는 경우 3.2%는 다툼 중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 몸을 밀치면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사례 등이고, 기타 8.5%는 불법촬영을 위한 카메라 설치, 온라인상 피해 등이다.

(다음 장)

표25.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당시 피해자 상황

<단위: 명(%)>

성별 \ 피해 유형	음주 중이거나 취한 상태	정신없음 (인파 등)	시비가 붙어서	도움을 주며 접근	장애	아동 청소년	기타(카탈, 온라인 상 등)	합계
강간	5 (35.7)	-	-	2 (14.3)	1 (7.1)	6 (42.9)	-	14 (100.0)
강간미수	-	-	-	-	-	-	-	0 (100.0)
특수강간	-	-	-	-	-	-	-	3 (100.0)
유사강간	-	-	-	-	-	1 (100.0)	-	1 (100.0)
강제추행	15 (36.6)	18 (43.9)	3 (7.3)	1 (2.4)	1 (2.4)	3 (7.3)	-	41 (100.0)
성희롱	-	1 (33.3)	-	-	-	-	2 (66.7)	3 (100.0)
카메라이 용촬영	1 (25.0)	-	-	-	-	-	3 (75.0)	4 (100.0)
성적목적 을위한다 중이용장 소침입	-	-	-	-	-	-	1 (100.0)	1 (100.0)
통신매체 이용음란	-	-	-	-	-	-	2 (100.0)	2 (100.0)
미상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합계	24 (34.3)	19 (27.1)	3 (4.3)	3 (4.3)	2 (2.9)	11 (15.7)	8 (11.4)	70 (100.0)

## 2-4.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53.2%로 높은 비율 차지

<표26.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대응>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53.2%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피해 직후 신고를 하거나, 직후 하지 못하더라도 수일 내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이는 2023년 기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의 형사 고소 사례인 21.9%보다 2배 이상 높다<sup>4)</sup>.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 신고 등 피해에 대한 대응을 지체없이 하는 사례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관계의 특성 등으로 신고나 대응을 고민하는 경우와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22.3%인데, 이 사례들도 피해 직후나 수일 내로 상담소에 전화하여 신고절차 등 대응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였다. 개인적 대응 7.4%는 바로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장소 관련자에게 문의하는 등의 대응을 했던 경우이다. 미신고(미파악 포함) 17.0%는 신고자체를 고민하거나, 과거 피해 당시 여러 이유로 신고하지 못했던 경우 등이다.

**표26.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대응**

<단위: 명(%)>

바로신고	상담소 상담	개인적 대응	미신고 (미파악 포함)	합계
50	21	7	16	94
(53.2)	(22.3)	(7.4)	(17.0)	(100.0)

## 2-5.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주 호소내용: 법적대응과 심리·정서적 호소 등

<표27.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요구(중복)>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적대응을 문의하는 경우가 61.7%를 차지했다. 이 경우 피해 직후 바로 신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여겨져, 수사절차에 대한 문의한 경우나, 신고하기 전에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한 경우이다.

4) 2023년 기초 상담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할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인 470명 중 형사고소를 한 사례는 103명(21.9%) 이다.

표27.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요구(중복)

요구사항	법적대응	심리·정서적 호소	개인적 대응	합계
건수	58	58	16	132
전체 피해인원 대비 해당 비율(%)	61.7	61.7	17.0	140.4

이어서 피해로 발생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61.7%도 보고되고 있는데, <표28.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심리·정서적 어려움(중복)>에 따르면 분노 40.4%, 불안 37.2%로 높은 비율과 함께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분노·불안이고, 두 번째로는 피해로 인해 야기된 일상 생활의 불편함과 곤란에서 이어진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다. 이 경우 대중교통 등 일상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후 해당 공간에 가지 못하거나, 갑자기 유사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수면장애로 이어져 잠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일상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 과거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해를 겪고 주위 어른에게 피해를 알렸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이전에도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있었는데 당시 대응하지 못했던 경우 매우 높은 분노와 좌절감을 호소하였다.

(다음 장)

표28. 최근 3년간(2021-202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 심리·정서적 어려움(중복)

심리·정서적 어려움	건수(%)	내용
우울	24 (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과 어려움 등</li> </ul>
불안	35 (3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밖에 나가지 못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함</li> <li>갑자기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두려움</li> <li>가해자 보복에 대한 불안 등</li> </ul>
분노	38 (4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자체에 대한 분노</li> <li>우울, 불안 등 발생하여 일상의 변화가 된 부분에 대한 분노</li> <li>아동·청소년 피해의 경우 당시 도움을 주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분노 등</li> </ul>
보복심리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자에 대한 보복심리</li> </ul>
죄책감	4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자와 술을 마신 것 등 본인에 대한 죄책감 등</li> </ul>
자살충동	4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피해 시 도움을 받거나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등</li> <li>피해로 인한 심적 어려움이 충동이나 시도로 이어짐</li> </ul>
자살시도	2 (2.1)	
임신불안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간, 준강간 피해이후 임신불안 등</li> </ul>
대인관계회피	3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로 인한 대인관계회피 등</li> </ul>
섭식장애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섭식장애로 이어짐</li> </ul>
수면장애	5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갑자기 또 피해가 발생할까 봐 잠들기 어려움</li> <li>피해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수면장애로 이어짐</li> </ul>
합계	120 (127.6)	-